

박방영_향기로운날, 한지위혼합, 69x204cm, 2007

예술로 승화한 부처님 가르침

갤러리 선경 '부처님 향기 되어…' 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 형상과 사상을 현대미술에 녹아낸 작품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수원 권선구 갤러리 선경은 8월 24일부터 9월 19일 까지 '부처님 향기 되어 세상을 보다' 특별기획전을 대중에 선보인다.

불교미술가와 일반 미술가 27명이 참여하는 이번 특별기획전에는 서양화, 동양화, 판화, 조각, 설치 등 불교적 형상과 의미를 담은 작품들이 약 10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에는 텐진쬔뒤, 구담, 도일, 도현 스님을 비롯해 고승희, 김민지, 김선희, 김시현, 김장혁, 남상운, 룡, 문주호, 박경귀, 박방영, 박진홍, 배진석, 백범영, 신상철, 신주호, 이강화, 이동숙, 이상기, 이혜원, 정은혜, 지원진, 차경진, 하춘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에는 파티션 포함하여 약 350평 규모의 전시 공간에 10호 미만 소품부터 100호 이상의 대형 작품까지 다양하게 전시됐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예술적으로 승화된 부처님의 형상과 사상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적 가치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갤러리선경 텐진쬔뒤 관장은 "불보살의 형상을 예술작품으로 승화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치를 담아내는 훌륭한 방법 중의 하나로 일종의 수행이며, '참나'를 찾아 나가는 일"이라면서 "그림을 본다는 것은 일종의 명상이기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면서 주변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고 밝혔다.



신상철_사유의기억-3.193.9x250cm oil on canvas 2023

불교 · 일반미술가 27명 참여해

동양 · 서양화 등 100여점 전시

佛法 담어낸 K-미술 전파 의지

이어 "'부처님 향기되어 세상을 보다' 전시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갤러리 선경 전시기획부는 "이번 특별전을 시작으로 불교 미술계와 일반 미술계와의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라며 "불교 미술이 전통의 답습 범주를 넘어, 현대미술로서의 방향성을 모색하여 세계 속 한국 미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배화로 알려져 있는 불화(佛畵)에는 종교적 목적 이외에도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생각하고 기원했던 염원이 담겨 있다"면서 "그렇기에 불교를 깊이 알지 못하더라도 종교를 뛰어넘어 그림을 감상하는 그 자체로 마음의 평온과 환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주 고판화박물관 소장품, 中서 전집 발간

8월 17일 계약 체결…8권 대형 채색전집 출간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 소장품 관련 도록이 중국에서 전집으로 발간된다.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은 "8월 17일 중국 북경연산출판사에서 출판 계약을 마쳤다. 한국 고판화박물관 유물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러한 결과는 30여년간 모은 한국, 중국, 일본, 티벳, 몽골, 베트남 등 동 아시아 고판화 유물 6000여점의 다문화적인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집에는 박물관이 소장한 한국, 중국, 일본, 티베트, 몽골, 베트남 등 여러 지역의 고판화 유물 6천여 점 가운데 문화 · 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엄선해 수록될 예정이다. 전집은 편집 작업을 걸쳐 8권 분량의 대형 채색전집으로 오는 2025년 출간될 예정이다.

이번 전집의 주편을 맡은 마문대 북경수도도서관 관원은 "중국 출판사상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고판화 유물이 함께 실리는 최초의 출판 기획"이라며 "이눈 고판화 역사에 남을 중요한 출판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이 중국 현지서 출판 협약을 맺고 있다.

선지식 법문을 '書道'로 승화시키다

박순하 '깨달음의 노래' 展

통도사 성보博 9월3일까지

40여 년 동안 서예 작품으로 전법의 길을 걸어온 매현 박순하의 전시회가 열린다.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송천)은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매현 박순하 서예전 : 깨달음의 노래'를 개최한다.

박순하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과 큰 스님들의 선시(禪時), 법문을 작품화해 선보인다. 특히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법어와 통도사에서 주석하며 근현대를 대표하는 선사 경봉 스님과 월하 스님의 문집에서 발췌한 문장을 새롭게 서예 작품으로 구성화 했다. 작품은 30여점 전시된다.

이번 전시를 기대하며 내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40여 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묵향에 취해 서법연찬(書法研鑽)에 매진해 온 매현 박순하 선생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며 " 일자일획에 신심과 원력을 담아 부처님과 조사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표현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면면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용철 양산시립박물관 관장은 "작가의 작품을 '산마루에 자라난 매화나무와 매화꽃 같은 선서(禪書)'라고 표현한 글을 보았다. 작가의 작품을 처음 보고 느낀 저의 소견도 선(禪)이었다"며 "매현 선생의 작품에는 맑고 투명함이 흐르고 있으며, 글씨에는 독특한 필치가 있고 이것은 다른 작가에게서 볼 수 없는 매력이고 힘이다. 작가의 작품에 담길 큰 스님들의 법문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박순하 작가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매현서예학원 원장, 향수해 사경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4회 및 특선 2회, 매일서예문인화대전 대상, 경남미술대전 대상, 부산미술대전 대상 등 우수의 공모전 입상 경력과 함께 전시, 심사 및 운영위원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055)384-001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의 법문을 박순하 작가가 서예로 쓴 작품.

한국불교학회, '한불학 아카데미' 개설

9월 9일~12월 2일 강의

불교 등 강좌 주제 다채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불교학회(회장 백도수)가 '한불학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불교인문학 대중화에 나선다. 한국불교학회가 새로 개설한 '한불학 아카데미'는 9월 9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3년 가을 강좌를 연다. 장소는 한국불교학회 사무실인 서울 중구 낙원빌딩 5층이다.

강의는 불교학부터 서양철학까지 다채롭다. 여래장사상 전문가인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는 '대승기신론 특강'(9월 13일~11월 29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을, 권서영 다르마키르티사상 연구소장은 '불교인식론의 철학적 이해(9월 12일~11월 28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를 강의한다. 백도수 한국불교학회장은 '범어로 읽는 〈법화경〉 강독'(9월 14일~11월 30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을, 자홍 스님은 '초급 티벳어 강의'(9월 15일~12월 1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을 진행한다.

또한, 조광제 철학아카데미 대표는 '후설의 현상학 강의'(9월 11일~11월 27일, 격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을 맡는다.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강독하는 강좌도 개설돼 9월 9일부터 12월 2일까지 격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강의는 신혜영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 박사가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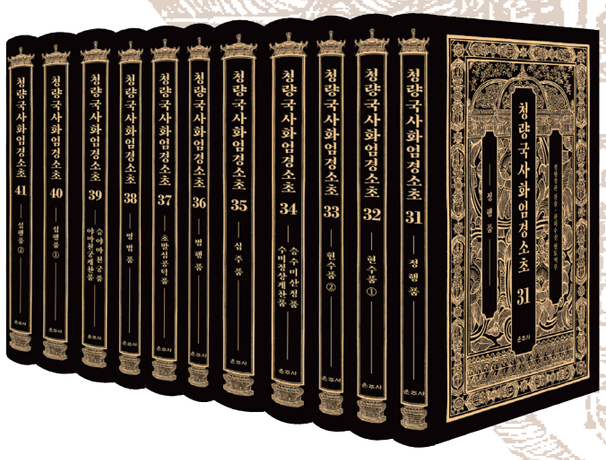
강의 접수는 한국불교학회 이메일(hanbulhak@hanmail.net)로 하면된다. 수강료는 강좌당 12만원이며, 선착순 20명씩 모집한다. 문의(010)2474-7411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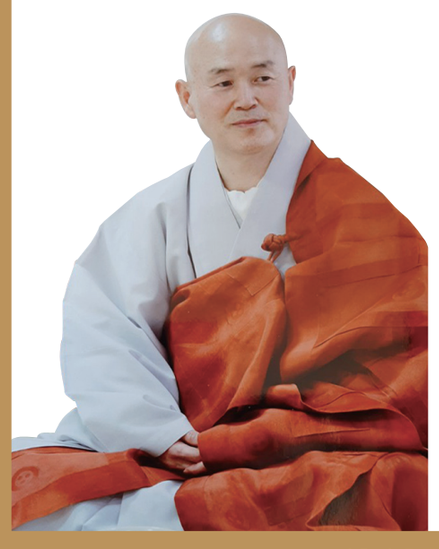
『화엄경』 주석의 결정판,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
1,200년 침묵의 역사를 깨고 이 세상에 처음 눈을 뜨다!

『대방광불화엄경 수소연의초』 4차분 11권 출간!

『청량국사화엄경소초淸涼國師華嚴經疏鈔』 1~41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 신국판양장
(낱권 판매 가능)



이 시대 화엄종주 해인정사 수진 스님이 엮어내는
화엄의 대서사시!

제11 정행품부터 현수품, 승수미산정품, 수미정상게찬품, 십주품, 범행품, 초발심공덕품, 명법품, 승야마천궁품, 야마천궁게찬품, 제21 십행품까지 출간!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고지식할 정도의 꼼꼼한 번역!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상세하고 치밀한 각주!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